

3. 전라남도 항목

- 3 - 1.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 3 - 2. 저출산 원인 및 지원 정책
- 3 - 3. 월평균 가구소비
- 3 - 4. 청년 지원 정책
- 3 - 5.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식
- 3 - 6. 빈집 활용방안
- 3 - 7. 귀농어·귀촌 이유 및 필요한 지원
- 3 - 8. 쓰레기 처리 만족도
- 3 - 9.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 3 - 10.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
- 3 - 11. 여가 활동
- 3 - 12.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
- 3 - 13.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3 - 1.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장성 군민 10명 중 6명은 결혼과 자녀에 대해 긍정적 견해

· 군민 10명 중 6명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

-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62.6%로, 2024년(61.5%) 대비 1.1%p 증가함
- 연령별 결혼을 '해야 한다'의 응답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1.6%로, 2024년(2.2%) 대비 0.6%p 감소함

· 군민 10명 중 6명은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

- 자녀가 '있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64.2%로, 2024년(62.3%) 대비 1.9%p 증가함
- 연령별 자녀가 '있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희망하는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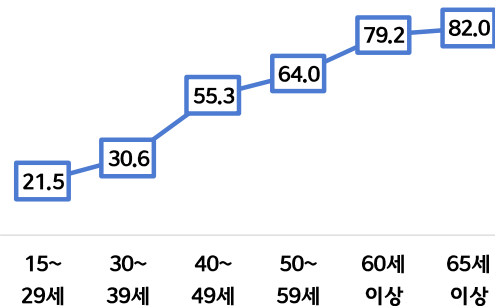
- 자녀 양육 지원 정책으로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이 33.8%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2024년(29.2%) 대비 4.6%p 증가함

· 자녀 없어도 되는 이유는 양육비용 부담

- 자녀 없어도 되는 이유로 '양육비용 부담'이 35.5%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2024년(15.2%) 대비 20.3%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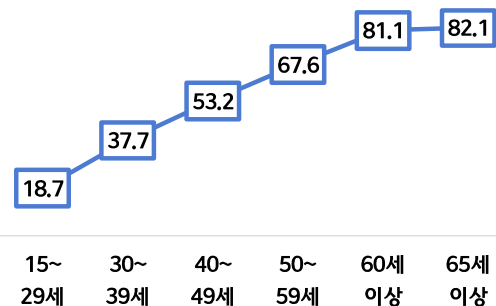
<< 연령별 결혼에 대한 견해(해야 한다)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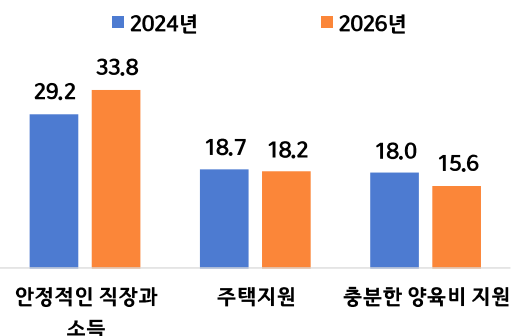
<< 연령별 자녀에 대한 견해(있어야 한다)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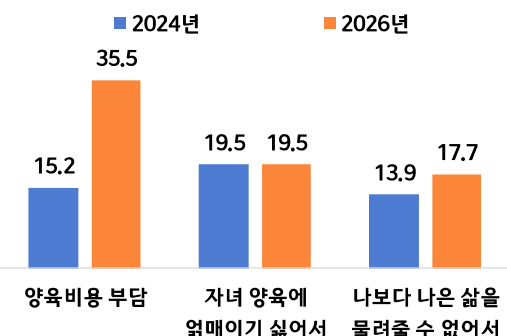
<< 자녀 양육 지원 정책(상위 3개 항목) >>

(단위 : %)



<< 자녀 없어도 되는 이유(상위 3개 항목) >>

(단위 : %)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 (1) 결혼에 대한 견해

(단위 : %)

구 분	계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2 0 2 6 년	100.0	62.6	27.7	34.9	28.4	1.6	1.4	0.2	7.4
2 0 2 4 년	100.0	61.5	30.4	31.1	33.3	2.2	2.2	0.0	3.0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21.5	5.3	16.2	41.1	5.5	5.5	0.0	31.8
3 0 ~ 3 9 세	100.0	30.6	11.6	19.1	53.4	5.8	3.8	2.0	10.2
4 0 ~ 4 9 세	100.0	55.3	10.9	44.5	41.3	1.8	1.8	0.0	1.5
5 0 ~ 5 9 세	100.0	64.0	21.7	42.3	32.3	0.0	0.0	0.0	3.8
6 0 세 이 상	100.0	79.2	42.0	37.2	16.6	0.4	0.4	0.0	3.8
6 5 세 이 상	100.0	82.0	45.6	36.4	13.1	0.5	0.5	0.0	4.5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 (2) 자녀에 대한 견해

(단위 : %)

구 분	계	있어야 한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있는 편이 좋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없어도 된다	없는 편이 좋다	전혀 없어도 된다	잘 모르겠다
2 0 2 6 년	100.0	64.2	28.1	36.1	25.5	2.4	2.2	0.2	7.8
2 0 2 4 년	100.0	62.3	28.7	33.6	32.3	1.2	1.1	0.2	4.1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18.7	1.6	17.1	38.3	7.6	7.6	0.0	35.4
3 0 ~ 3 9 세	100.0	37.7	12.7	25.0	41.7	10.5	8.5	2.0	10.2
4 0 ~ 4 9 세	100.0	53.2	13.8	39.3	42.6	2.8	2.8	0.0	1.5
5 0 ~ 5 9 세	100.0	67.6	21.3	46.3	28.3	0.4	0.0	0.4	3.8
6 0 세 이 상	100.0	81.1	43.1	38.1	14.7	0.5	0.5	0.0	3.7
6 5 세 이 상	100.0	82.1	45.3	36.8	13.0	0.6	0.6	0.0	4.4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 (3) 자녀 양육 지원 정책 (다중 응답)

(단위 : %)

구 분	계	부모교육	아빠양육 제도문화	주택지원	안정적인 직장 소득	유치원, 돌봄시설 확충	직장 육아제도 확충	충분한 양육비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기타
2 0 2 6 년	100.0	11.1	3.9	18.2	33.8	7.8	5.5	15.6	4.1	0.0
2 0 2 4 년	100.0	10.7	2.7	18.7	29.2	7.4	5.8	18.0	7.4	0.1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 (4) 자녀 없어도 되는 이유 (다중 응답)

(단위 : %)

구 분	계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없어서	양육비용 부담	일에 지장	자녀 양육에 열매이기 싫어서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독박육아 등 양육 시간과 노력 부담	과도한 경쟁과 과열된 교육제도	기타
2 0 2 6 년	100.0	17.7	35.5	12.6	19.5	9.8	0.0	4.9	0.0
2 0 2 4 년	100.0	13.9	15.2	7.4	19.5	15.6	2.3	22.8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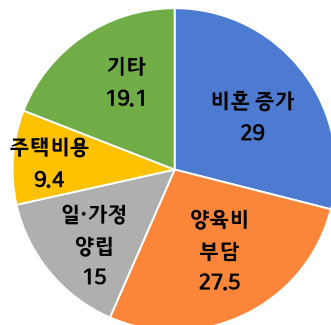
3 - 2. 저출산 원인 및 지원 정책

장성 군민이 생각하는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

- 장성 군민 10명 중 3명은 저출산 원인이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이라고 응답
 - 저출산 원인 중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4년(27.1%) 대비 1.9%p 증가함
 - 장성 군민이 생각하는 저출산 원인은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29.0%), ‘자녀 양육비 부담’(27.5%),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15.0%), ‘주택 마련 비용 부담’(9.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저출산 지원 정책은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
 - 저출산 해결 지원 정책 중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6.0%로 2024년(27.5%) 대비 1.5%p 감소함
 - 장성 군민이 생각하는 저출산 해결 지원 정책은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26.0%),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 확대’(20.7%), ‘결혼 지원금 지급 확대’(17.9%), ‘일·가정 양립제도 지원’(12.7%)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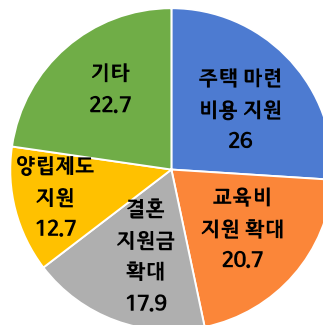
<< 저출산 원인(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저출산 해결 지원 정책(상위 4개 항목) >>

(단위 : %)



저출산 원인 및 지원 정책 - (1) 저출산 원인 (다중 응답)

(단위 : %)

구 분	계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자녀 양육비 부담	자녀 양육 인프라 부족	양질의 일자리 부족	주택 마련 비용 부담	사회 및 미래에 대한 두려움	기타
2026년	100.0	29.0	15.0	27.5	6.5	6.1	9.4	6.4	0.1
2024년	100.0	27.1	14.5	24.7	3.5	7.9	13.0	9.0	0.4

저출산 원인 및 지원 정책 - (2) 저출산 해결 지원 정책 (다중 응답)

(단위 : %)

구 분	계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	결혼 지원금 지급 확대	임신·출산 지원 확대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제도 지원	2자녀 부터 다자녀 인정	출산·육아 휴직 후 직장 복귀 지원	기타
2026년	100.0	26.0	17.9	12.5	20.7	12.7	4.9	4.9	0.4
2024년	100.0	27.5	19.0	9.7	20.2	14.8	3.9	4.4	0.6

3 - 3. 월평균 가구소비

장성 군민이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은 식료품비

· 장성 군민 10명 중 6명은 월평균 200만원 이하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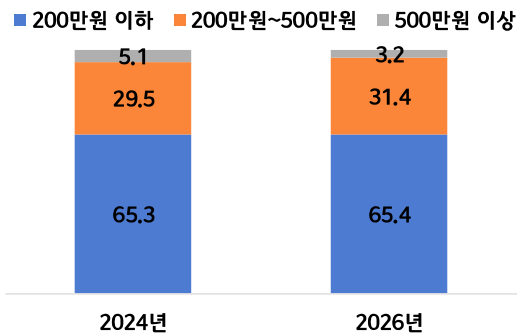
-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액에 대해 '2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군민은 65.4%로, '200만원~500만원' (31.4%), '500만원 이상' (3.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장성 군민 10명 중 4명은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이 식료품비라고 응답

- 가장 부담이 되는 생활비 항목에 '식료품비'라고 응답한 군민은 44.9%이고, 특히 1순위로 선택한 군민은 50.2%로 나타남
- '식료품비'를 제외한 문항에서는 '보건의료비' (15.5%), '교통비' (10.0%), '주거비' (9.6%), '교육비' (6.3%)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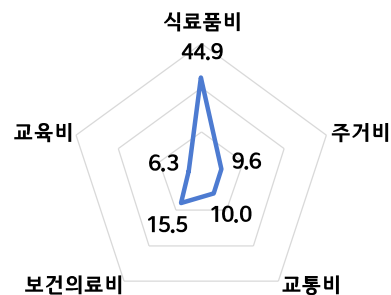
<< 월평균 소비지출액 >>

(단위 : %)



<< 가장 부담이 되는 생활비(상위 5개 항목) >>

(단위 : %)



월평균 가구소비 - (1) 소비지출액

(단위 : %)

구분	계	50만원 미만	50만원 ~ 100만원	100만원 ~ 200만원	2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400만원	4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 600만원	600만원 ~ 700만원	700만원 ~ 800만원	800만원 이상
2026년	100.0	17.5	23.2	24.7	17.3	10.5	3.6	1.3	0.7	0.4	0.8
2024년	100.0	12.6	25.7	27.0	16.8	7.9	4.8	2.6	1.2	0.2	1.1

월평균 가구소비 - (2) 가장 부담이 되는 생활비 항목

(단위 : %)

구분	계	식료품비	주거비	교통비	가사용품비	의류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통신비	경조사비	기타
(1) 종합												
2026년	100.0	44.9	9.6	10.0	4.3	1.3	15.5	6.3	1.2	2.1	4.0	1.0
2024년	100.0	44.5	8.3	6.9	4.1	1.1	18.3	6.4	2.3	2.4	3.7	1.9
(2) 1순위												
2026년	100.0	50.2	9.6	8.7	2.3	1.2	16.1	7.1	0.7	1.0	2.4	0.7
2024년	100.0	51.1	8.9	4.3	2.7	0.5	19.1	6.3	2.3	1.2	1.9	1.6
(3) 2순위												
2026년	100.0	28.8	9.6	13.8	10.6	1.5	13.5	4.1	2.5	5.3	8.7	1.6
2024년	100.0	24.9	6.6	14.8	8.3	3.1	15.9	6.7	2.0	6.0	8.9	2.8

3 - 4. 청년 지원 정책

장성 군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청년 지원 정책은 취업 상담·알선

· 장성 군민 10명 중 2명은 취업 상담·알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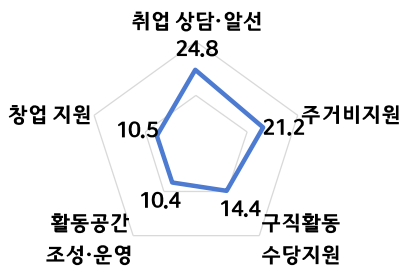
- 전라남도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취업 상담·알선'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거비 지원'(21.2%),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14.4%), '창업 지원'(10.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 상담·알선이 가장 높은 응답

-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취업 상담·알선'에 대한 응답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15~29세(28.3%), 50~59세(27.7%), 65세 이상(24.6%), 60세 이상(24.1%), 40~49세(23.7%), 30~39세(18.9%)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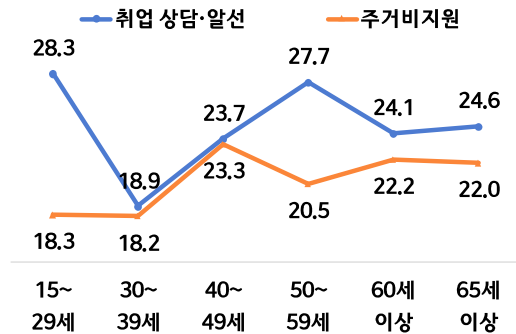
<< 청년 지원 정책(상위 5개 항목) >>

(단위 : %)



<< 연령별 청년 지원 정책(상위 2개 항목) >>

(단위 : %)



청년 지원 정책 (다중 응답)

(단위 : %)

구 분	계	활동공간 조성·운영	구직활동 수당 지원	취업 상담·알선	창업 지원	주거비 지원	지자체 적용 통장 지원	커뮤니티 활동 지원	청년 정책 홍보	출산·양육 지원	건강 상담 지원	기타
2026년	100.0	10.4	14.4	24.8	10.5	21.2	4.2	2.8	1.7	8.9	0.7	0.3
2024년	100.0	11.8	12.3	27.8	9.4	17.3	2.9	4.2	1.1	11.8	1.1	0.3
< 연 령 별 >												
15~29세	100.0	15.6	16.3	28.3	10.1	18.3	2.1	3.8	2.7	2.8	0.0	0.0
30~39세	100.0	6.9	14.4	18.9	9.2	18.2	7.6	2.6	3.3	14.7	1.8	2.4
40~49세	100.0	12.0	12.3	23.7	10.7	23.3	4.2	1.0	2.4	9.0	0.8	0.5
50~59세	100.0	9.8	14.0	27.7	8.9	20.5	4.6	5.2	1.1	7.2	1.0	0.0
60세 이상	100.0	9.5	14.6	24.1	11.4	22.2	4.0	2.1	1.2	10.2	0.6	0.0
65세 이상	100.0	9.9	14.8	24.6	11.0	22.0	4.2	2.0	0.7	10.0	0.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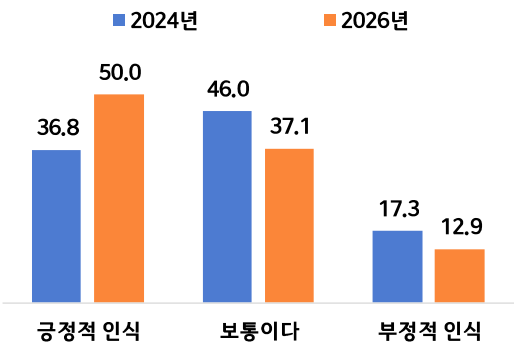
3 - 5.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식

장성 군민 10명 중 5명은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해 긍정적 인식

-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군민 증가**
 -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50.0%로 나타났고, 2024년(36.8%) 대비 13.2%p 증가함
 -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12.9%로 나타났고, 2024년(17.3%) 대비 4.4%p 감소함
- **장성 군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은 한국어 교육**
 - 가장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으로 ‘한국어 교육’이 ‘보통 이상’의 인식에서 각각 ‘매우 긍정적이다’ 38.4%, ‘긍정적이다’ 53.5%, ‘보통이다’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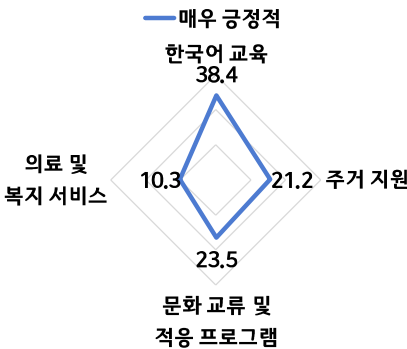
<<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식 >>

(단위 : %)



<<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상위 4개 항목) >>

(단위 : %)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식 - (1)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계	긍정적 인식	매우 긍정적이다		보통이다	부정적 인식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	
2026년	100.0	50.0	12.7	37.4	37.1	12.9	12.0	0.9	
2024년	100.0	36.8	9.9	26.9	46.0	17.3	14.5	2.7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식 - (2)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

(단위 : %)

구 분	계	한국어 교육	문화 교류 및 적응 프로그램	주거 지원	의료 및 복지 서비스	법률 상담 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기타
(1) 매우 긍정적이다								
2026년	100.0	38.4	21.2	23.5	10.3	3.9	2.7	0.0
2024년	100.0	60.7	18.3	12.2	6.3	0.9	1.6	0.0
(2) 긍정적이다								
2026년	100.0	53.5	22.1	10.2	9.8	0.9	3.5	0.0
2024년	100.0	39.6	22.5	16.0	14.9	3.9	2.3	0.9
(3) 보통이다								
2026년	100.0	47.9	27.5	12.2	5.7	1.1	4.9	0.5
2024년	100.0	46.5	23.5	12.6	13.0	2.1	2.3	0.1

3 - 6. 빈집 활용방안

빈집이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장성 군민 2024년 대비 증가

· 장성 군민 10명 중 5명은 집 주변에 빈집이 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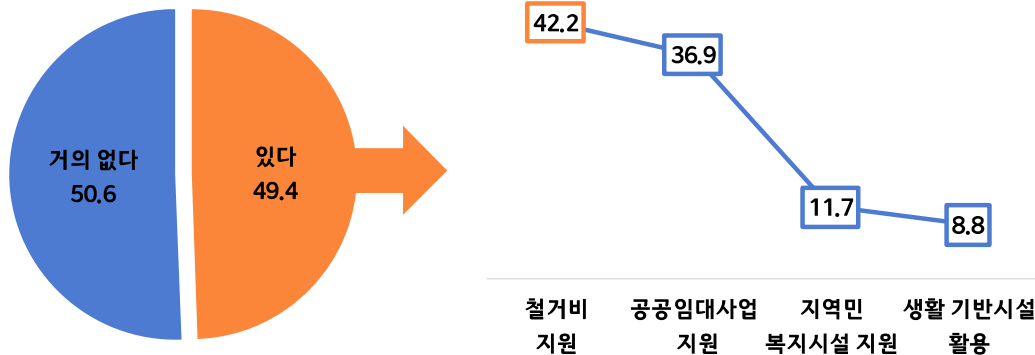
- ‘빈집이 거의 없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50.6%로 2024년(58.9%) 대비 8.3%p 감소함
- 빈집의 방치 정도에 대해 ‘빈집의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1.2%로 2024년(12.1%) 대비 9.1%p 증가함

· 장성 군민들이 원하는 빈집 처리 방안은 철거비 지원

- 빈집 처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 ‘철거비 지원으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유도’가 42.2%로 가장 높고 ‘재활용 가능한 빈집 새단장하여 공공임대사업 지원’(36.9%), ‘주민 휴식공간, 공원 조성 등 지역민 복지시설 지원’(11.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빈집의 수와 빈집 처리 또는 활용방안(기타 제외) >>

(단위 : %)



빈집 활용방안 - (1) 빈집 수와 방치정도

(단위 : %)

구 분	계	빈집이 거의 없다	빈집이 조금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빈집이 조금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빈집이 많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빈집이 많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2 0 2 6 년	100.0	50.6	18.7	24.3	2.5	3.9
2 0 2 4 년	100.0	58.9	10.7	21.4	1.4	7.5

빈집 활용방안 - (2) 빈집 처리 또는 활용방안

(단위 : %)

구 분	계	철거비 지원으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유도	재활용 가능한 빈집 새단장하여 공공임대사업 지원	주민 휴식공간, 공원조성 등 지역민 복지시설 지원	공용 주차장 및 공공용지 조성 등 생활 기반시설 활용	기타
2 0 2 6 년	100.0	42.2	36.9	11.7	8.8	0.4
2 0 2 4 년	100.0	45.4	26.8	15.1	9.8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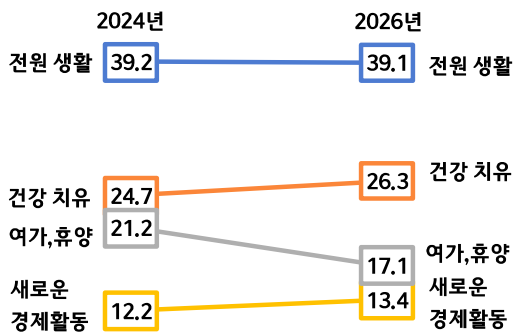
3 - 7. 귀농어·귀촌 이유 및 필요한 지원

귀농어·귀촌의 가장 큰 이유는 전원생활

- 장성 군민 10명 중 4명은 귀농어·귀촌의 이유가 전원생활이라고 응답
 - 귀농어·귀촌 이유에 대해 ‘전원생활’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39.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은퇴 후 여가 및 휴양’(26.3%), ‘농어촌에서 새로운 경제활동’(17.1%), ‘건강 치유’(13.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장성 군민이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귀농어·귀촌 지원 정책은 정착자금융자 지원
 - 장성 군민이 생각하는 귀농어·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 ‘귀농어·귀촌에 대한 정착자금융자 지원’이 36.5%로 가장 높고, ‘귀농어·귀촌 관심 분야 사전 체험프로그램 제공’(24.3%), ‘귀농어·귀촌에 관한 정보제공 기회 마련’(23.4%)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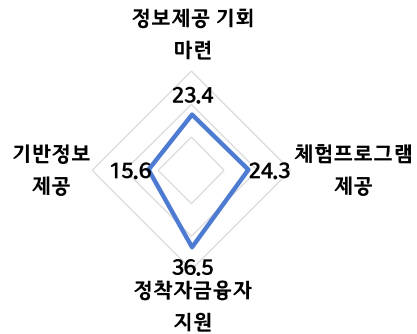
<< 귀농어·귀촌 이유(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귀농어·귀촌 지원정책(기타 제외) >>

(단위 : %)



귀농어·귀촌 이유 및 필요한 지원 - (1) 귀농어·귀촌 이유

(단위 : %)

구 분	계	전원생활	건강 치유	은퇴 후 여가 및 휴양	농어촌에서 새로운 경제활동	집안의 가업 승계	지자체 및 정부 정책 이용	기타
2026년	100.0	39.1	13.4	26.3	17.1	1.5	2.5	0.2
2024년	100.0	39.2	12.2	24.7	21.2	2.0	0.5	0.2

귀농어·귀촌 이유 및 필요한 지원 - (2) 귀농어·귀촌 지원정책

(단위 : %)

구 분	계	귀농어·귀촌에 관한 정보제공 기회 마련	귀농어·귀촌 관심 분야 사전 체험프로그램 제공	귀농어·귀촌에 대한 정착자금 융자 지원	귀농어·귀촌 지역에 대한 기반정보 제공	기타
2026년	100.0	23.4	24.3	36.5	15.6	0.2
2024년	100.0	22.0	30.1	31.7	15.6	0.5

3 - 8. 쓰레기 처리 만족도

장성군 쓰레기 처리 평균 만족도 5점 만점에 3.7점 이상

· 장성 군민 10명 중 5명은 쓰레기 처리에 만족

- 쓰레기 처리 만족도에 대해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생활폐기물 50.8%, 음식물 쓰레기 51.5%, 재활용 쓰레기 49.1%로 나타남
- 쓰레기 처리 만족도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생활폐기물 3.8점, 음식물 쓰레기 3.8점, 재활용 쓰레기 3.7점으로 나타남

·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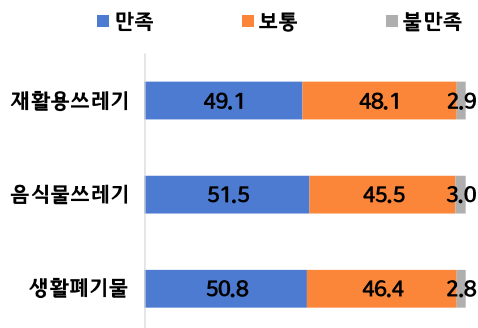
-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중부권이 55.1%로 가장 높고, 서부권 54.2%, 북부권 52.7%, 광주인근권 28.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쓰레기 처리 불만족 이유는 쓰레기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26.1%, 31.9%),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47.6%)
- 광주인근권에서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대해 불만족 이유로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86.1%)가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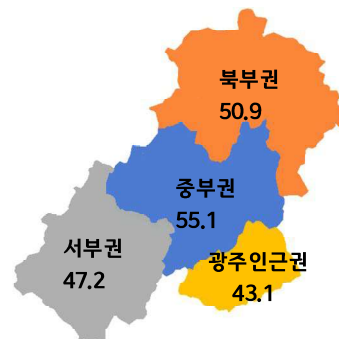
<< 쓰레기 처리 만족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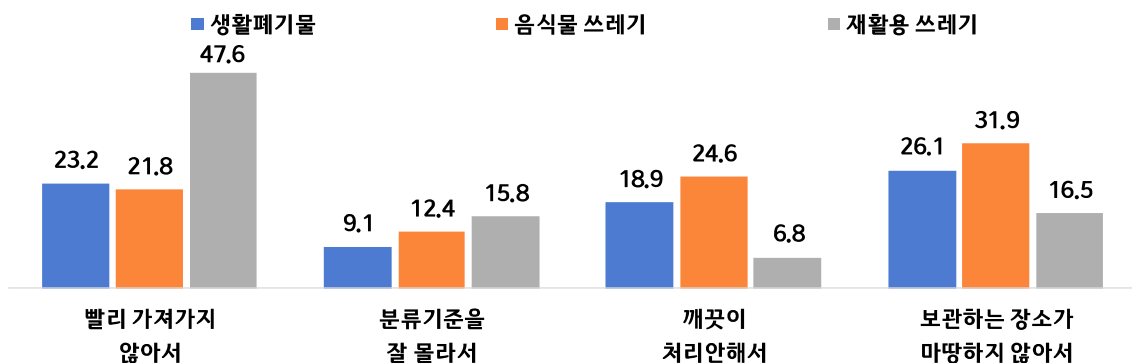
<< 지역별 생활폐기물 처리 만족도(만족) >>

(단위 : %)



<< 쓰레기 처리 불만족 이유(상위 4개 항목) >>

(단위 : %)



쓰레기 처리 만족도

(단위 : %)

구 분	평균 만족도	계	해당 있음										해당 없음
				소계	만족	매우		보통	불만족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불만족		
(1) 생활폐기물													
2 0 2 6 년	3.8	100.0	99.8	100.0	50.8	17.7	33.1	46.4	2.8	1.5	1.3	0.2	
2 0 2 4 년	3.9	100.0	99.8	100.0	66.1	32.1	34.1	28.7	5.2	3.5	1.6	0.2	
〈 지 역 별 〉													
중 부 권	3.8	100.0	100.0	100.0	55.1	25.2	29.9	43.4	1.5	1.5	0.0	0.0	
북 부 권	3.7	100.0	100.0	100.0	50.9	12.6	38.2	39.7	9.4	5.9	3.5	0.0	
서 부 권	3.6	100.0	99.2	100.0	47.2	7.4	39.8	51.7	1.1	0.0	1.1	0.8	
광 주 인 근 권	3.9	100.0	100.0	100.0	43.1	16.5	26.7	53.7	3.2	0.0	3.2	0.0	
(2) 음식물 쓰레기													
2 0 2 6 년	3.8	100.0	93.9	100.0	51.5	18.2	33.3	45.5	3.0	2.5	0.5	6.1	
2 0 2 4 년	3.9	100.0	95.7	100.0	63.4	31.6	31.9	31.2	5.3	2.5	2.8	4.3	
〈 지 역 별 〉													
중 부 권	3.8	100.0	100.0	100.0	55.1	27.2	27.9	40.9	4.0	4.0	0.0	0.0	
북 부 권	3.8	100.0	98.8	100.0	52.7	9.7	43.1	43.7	3.6	3.6	0.0	1.2	
서 부 권	3.6	100.0	90.4	100.0	54.2	9.0	45.3	45.8	0.0	0.0	0.0	9.6	
광 주 인 근 권	3.8	100.0	75.0	100.0	28.6	9.9	18.7	67.1	4.3	0.0	4.3	25.0	
(3) 재활용 쓰레기													
2 0 2 6 년	3.7	100.0	99.8	100.0	49.1	17.1	32.0	48.1	2.9	1.9	1.0	0.2	
2 0 2 4 년	3.9	100.0	99.7	100.0	66.4	32.9	33.5	28.4	5.1	3.3	1.8	0.3	
〈 지 역 별 〉													
중 부 권	3.8	100.0	100.0	100.0	53.8	25.9	27.9	44.7	1.5	1.5	0.0	0.0	
북 부 권	3.8	100.0	100.0	100.0	51.0	9.5	41.5	40.8	8.2	4.6	3.5	0.0	
서 부 권	3.7	100.0	99.2	100.0	50.1	8.2	42.0	49.9	0.0	0.0	0.0	0.8	
광 주 인 근 권	3.5	100.0	100.0	100.0	30.1	11.8	18.3	63.1	6.7	3.5	3.2	0.0	

쓰레기 처리 만족도(불만족 이유)

(단위 : %)

구 분	계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	분류기준을 잘 몰라서	깨끗이 처리하지 않아서	비용이 비싸서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지 않아서	기타
(1) 생활폐기물								
2 0 2 6 년	100.0	23.2	9.1	18.9	10.2	26.1	5.8	6.7
2 0 2 4 년	100.0	30.4	6.1	12.0	2.5	22.3	13.7	13.0
(2) 음식물 쓰레기								
2 0 2 6 년	100.0	21.8	12.4	24.6	0.0	31.9	3.7	5.7
2 0 2 4 년	100.0	27.5	7.4	6.6	0.0	41.2	6.3	10.9
(3) 재활용 쓰레기								
2 0 2 6 년	100.0	47.6	15.8	6.8	0.0	16.5	8.4	5.0
2 0 2 4 년	100.0	29.4	16.9	18.6	0.0	17.5	5.2	12.5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26.8	34.4	8.9	0.0	0.0	29.9	0.0
북 부 권	100.0	5.4	19.2	21.0	0.0	17.7	4.7	31.9
서 부 권	100.0	6.5	26.5	6.4	0.0	53.9	6.8	0.0
광 주 인 근 권	100.0	86.1	1.6	2.0	0.0	8.4	0.0	1.9

3 - 9.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는 보육비 지원 확대

· 장성 군민 10명 중 4명은 보육비 지원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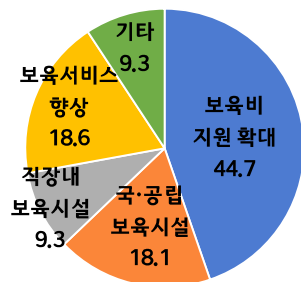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에 대해 ‘보육비 지원 확대’라고 응답한 군민은 44.7%로 2024년(37.4%) 대비 7.3%p 증가함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로 ‘보육비 지원 확대’(44.7%),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18.6%)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18.1%),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9.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에 대해 ‘보육비 지원 확대’(44.7%)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18.1%)에 대한 응답비율이 2024년(37.4%, 14.6%) 대비 각각 7.3%p, 3.5%p 증가함

· 해결해야 할 보육 문제에 대한 응답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에 대해 ‘보육비 지원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 42.9%, 여자 46.7%로 여자가 남자 대비 3.8%p 높게 나타남
- 두번째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에 대해 남자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20.0%)이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18.4%)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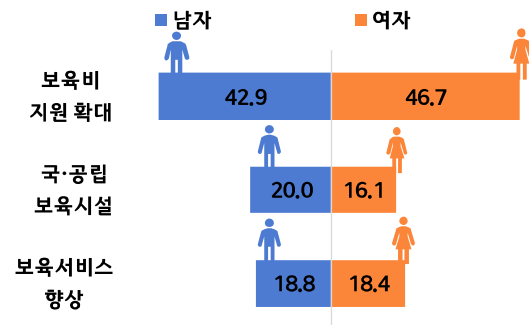
<<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성별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상위 3개 항목) >>

(단위 :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단위 : %)

구분	계	보육비 지원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육아 휴직제도 등의 정착	기타
2026년	100.0	44.7	18.1	9.3	18.6	4.4	4.9	0.0
2024년	100.0	37.4	14.6	11.3	21.4	8.2	7.1	0.0
< 성 별 >								
남자	100.0	42.9	20.0	10.0	18.8	4.4	4.0	0.0
여자	100.0	46.7	16.1	8.6	18.4	4.4	5.8	0.0

3 - 10.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

장성 군민이 요양서비스 받고 싶은 장소는 자택

· 장성 군민들이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는 부부 둘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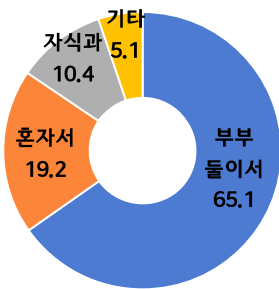
- 장성 군민이 선호하는 노후 생활 형태는 ‘부부 둘이서’가 65.1%로 2024년(61.9%) 대비 3.2%p 증가함
- 군민들이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는 ‘부부 둘이서’(65.1%), ‘혼자서’(19.2%), ‘자식 또는 배우자와 함께’(10.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장성 군민이 생각하는 요양서비스 받고 싶은 장소는 자택

-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가 ‘부부 둘이서’와 ‘혼자서’인 경우 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은 장소로 ‘자택’이 각각 68.1%, 6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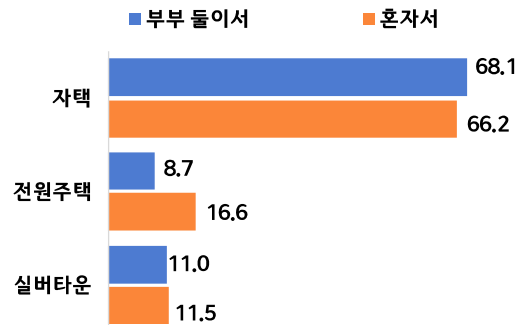
<<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상위 3개 항목) >>

(단위 : %)



<< 요양서비스 받고 싶은 장소(상위 3개 항목) >>

(단위 : %)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 - (1)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

(단위 : %)

구 분	계	자식 또는 자식의 배우자와 함께	부부 둘이서	혼자서	친인척과 함께	이웃과 함께	형제 자매와 함께	기타
2 0 2 6 년	100.0	10.4	65.1	19.2	0.9	3.1	1.1	0.2
2 0 2 4 년	100.0	13.6	61.9	20.1	0.2	2.0	2.1	0.2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 - (2) 요양서비스 받고 싶은 장소

(단위 : %)

구 분	계	자택 (현재 집)	전원주택	요양원	노인 전문병원	실버타운 (노인 전용마을)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1) 부부 둘이서								
2 0 2 6 년	100.0	68.1	8.7	6.0	5.8	11.0	0.4	0.0
2 0 2 4 년	100.0	66.8	15.9	2.1	2.0	12.5	0.5	0.2
(2) 혼자서								
2 0 2 6 년	100.0	66.2	16.6	2.3	3.1	11.5	0.3	0.0
2 0 2 4 년	100.0	57.7	8.7	8.9	3.1	20.3	0.3	1.0

3 - 11. 여가 활동

장성 군민이 주로 하는 여가 활동은 TV 및 DVD 시청

• 장성 군민 10명 중 3명이 현재 주로 하는 여가 활동은 TV 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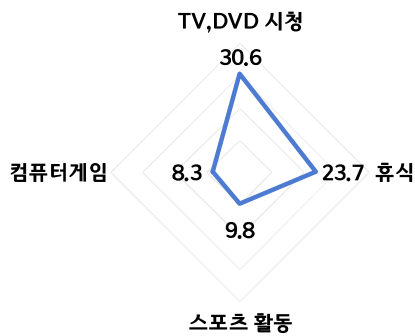
-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 활동은 'TV 및 DVD 시청'(30.6%)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휴식'(23.7%), '스포츠 활동, 등산 등 건강관리'(9.8%),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8.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TV 및 DVD 시청'(30.6%)은 2024년(32.9%) 대비 2.3%p 감소함

• 장성 군민 10명 중 2명이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은 관광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은 '관광'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스포츠 활동, 등산 등 건강관리'(14.2%), '휴식'(12.0%), '취미, 자기개발'(10.6%)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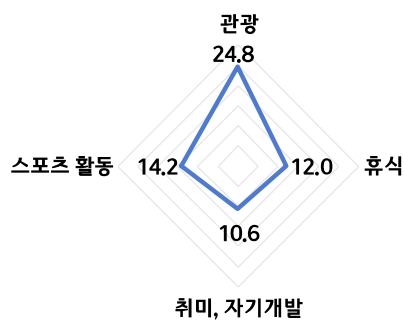
<< 주로 하는 여가 활동(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상위 4개 항목) >>

(단위 : %)



여가 활동

(단위 : %)

구 분	계	TV 및 DVD 시청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등산 등 건강관리	관광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취미, 자기 개발	휴식	사회 활동 및 기타 활동	기타
(1)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 활동 (다중 응답)												
2026년	100.0	30.6	5.7	2.6	3.2	9.8	3.4	8.3	5.1	23.7	7.3	0.3
2024년	100.0	32.9	4.3	1.6	4.8	8.9	4.7	6.4	3.8	25.3	6.4	1.0
< 성 별 >												
남 자	100.0	29.1	5.1	2.2	4.7	10.7	3.2	11.8	5.1	21.3	6.5	0.2
여 자	100.0	32.2	6.4	2.9	1.5	8.9	3.5	4.6	5.0	26.3	8.2	0.4
(2)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 (다중 응답)												
2026년	100.0	8.1	7.7	3.7	5.7	14.2	24.8	3.6	10.6	12.0	9.4	0.1
2024년	100.0	13.9	7.9	3.4	3.6	12.0	21.0	3.8	10.4	15.4	8.3	0.3
< 성 별 >												
남 자	100.0	6.6	6.7	3.6	8.0	16.7	25.1	4.8	10.2	10.5	7.8	0.0
여 자	100.0	9.7	8.8	3.8	3.1	11.4	24.6	2.3	11.1	13.6	11.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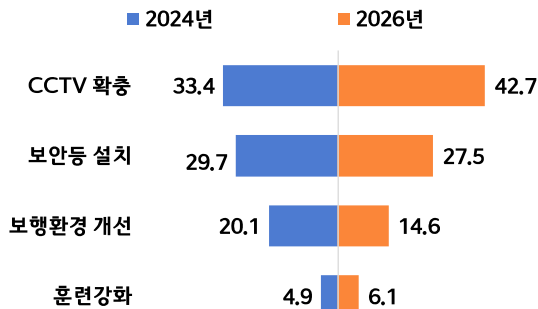
3 - 12.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은 CCTV 확충

- **장성 군민이 생각하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방범용 CCTV 확충**
 -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방범용 CCTV 확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2.7%로 2024년(33.4%) 대비 9.3%p 증가함
 -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방범용 CCTV 확충’(42.7%), ‘보안등 설치로 범죄 취약 지역해소’(27.5%), ‘보행환경 개선’(14.6%), ‘각종 재난을 대비한 훈련강화’(6.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방범용 CCTV 확충’ 다음으로 높은 비율은 보인 ‘보안등 설치로 범죄 취약지역 해소’(27.5%)는 2024년(29.7%) 대비 2.2%p 감소함
-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여자가 남자보다 방범용 CCTV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
 -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방범용 CCTV 확충’에 응답한 남자의 비율은 38.3%, 여자는 47.3%로 여자가 남자보다 9.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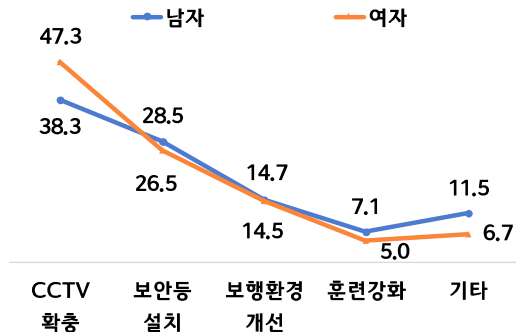
<<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성별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상위 4개 항목) >>

(단위 : %)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

(단위 : %)

구 분	계	방범용 CCTV 확충	보안등 설치로 범죄 취약지역 해소	보행환경 개선	각종 재난을 대비한 훈련 강화	어린이 등학교 주변 안전 지도, 자율 순찰 강화	메뉴얼 및 제도 정비, 의식 상승 홍보, 교육	기타
2026년	100.0	42.7	27.5	14.6	6.1	3.8	4.4	1.0
2024년	100.0	33.4	29.7	20.1	4.9	3.7	6.7	1.7
< 성 별 >								
남 자	100.0	38.3	28.5	14.7	7.1	4.9	5.8	0.8
여 자	100.0	47.3	26.5	14.5	5.0	2.6	2.9	1.2

3- 13.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군민 10명 중 5명은 장성 군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짐

· 장성 군민 과반수는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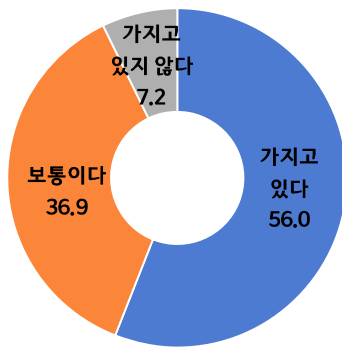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에 대해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56.0%로 나타남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에 대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7.2%로 2024년 (10.5%) 대비 3.3%p 감소함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은 지역별 차이를 보임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광주인근권이 67.0%로 가장 높았고 서부권(64.5%), 북부권(61.3%), 중부권(46.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서부권이 2.2%로 가장 낮고, 광주인근권(4.0%), 북부권(7.3%), 중부권(10.7%) 순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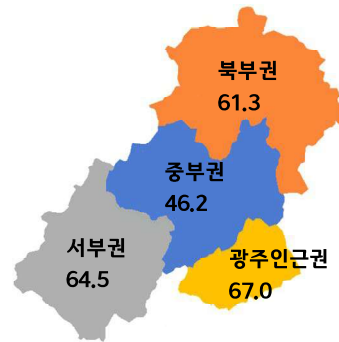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

(단위 : %)



◀ 지역별 소속감 및 자부심(가지고 있다) ▶

(단위 :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단위 : %)

구 분	계	가지고 있다			보통이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다	많이 가지고 있다	약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2 0 2 6 년	100.0	56.0	15.5	40.5	36.9	7.2	6.1	1.1
2 0 2 4 년	100.0	56.1	18.1	38.0	33.5	10.5	8.8	1.7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46.2	12.1	34.1	43.0	10.7	9.6	1.1
북 부 권	100.0	61.3	25.9	35.4	31.4	7.3	6.6	0.7
서 부 권	100.0	64.5	10.5	54.0	33.3	2.2	1.9	0.3
광 주 인 근 권	100.0	67.0	23.5	43.5	29.0	4.0	1.8	2.3